# ‘우리쌀 유산발효물, 장 건강에 탁월’

## 농진청, 장 건강 개선효과 구명 통한 기술이전 · 산업화 ‘활발’

## 음료 · 제빵 · 펫푸드 · 화장품 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 판매 중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리 쌀에 토종유산균을 접목한 발효 소재인 쌀 유산발효물을 개발하고, 장 건강 개선효과 구명을 통해 기술이전과 산업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장 건강이 대사성질환, 비만, 뇌건강 등의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많아지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소재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쌀 유산발효물의 소비자 선호도조사(Gang survey, FGI)를 실시해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장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했다.

인체대장 모사 발효모델(in vitro gut model)로 쌀 유산발효물의 장건강에 대한 실험결과, 일반 유산균 발효물 대비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및 비피더스균(Bifidobacterium)이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유용물질인 단쇄지방산도 증가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선됐다.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는 14일간 쌀 유산발효물을 1g/kg을 먹였을 때 소장 내 면역 개선 효과가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농진청이 20~50대 성인 여성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쌀 유산발효물의 소비자 선호도 조사결과, ‘장 건강 개선’ 부분에서 95%가 선호했다.

쌀 유산발효물 제품이 출시되면 92%가 구입하겠다고 답했으며, 신뢰성과 필요성은 각각 90%, 97%로 조사됐다.

현재 쌀 유산발효물 제조기술은 국내외 특허등록이 완료됐으며, 음료, 제빵, 펫푸드, 화장품 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산업화 되어 판매 중이거나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쌀 유산발효물의 경제적 효과는 기술편익 116억 원, 생산유발효과 652억 원, 고용창출 267명으로 평가됐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쌀 유산발효물은 산업적 소재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라며 “앞으로 쌀을 비롯한 다양한 식량작물과 발효미생물을 접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장, 뇌, 비만 등의 건강산업소재로 활용돼 식량작물의 소비확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백년소공인’을 찾습니다

## 전북중기청, 연중 수시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능력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해 ‘백년소공인’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백년소공인은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 가운데 숙련기술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소공인 인증현판을 제공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사업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제품·기술가치 향상 사업 등 소공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매년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수여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2-3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경영 노하우 전수·공유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추천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해 자격이 되는 기업(인)을 제3자인 국민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로 지원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연중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국민추천’ 메뉴에 접속,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 추천인 정보 및 추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혁신의지 및 성장역량을 갖춘 우리지역의 우수 소공인이 발굴·선정되어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site/jeonbuk/main.do)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언택트 뱅킹 확장에 발맞춰’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로 바꿈대출’ 출시

## 1억5000만원 이내, 우대금리 최대 1.4%p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모바일을 통해 다른은행의 신용대출을 농협은행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NH로 바꿈대출’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NH로 바꿈대출은 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여러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내역 및 대출 한도, 금리를 즉시 확인하고, 대출 신청 후 영업점 1회 방문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다.

본 상품의 대출한도는 개인별 최대 1억5,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1.65% (8월 6일 현재, 신용등급1등급, 1년 일시상환, 우대금리 1.40%p 적용기준)이다. 대출기간은 1년(기한연장 가능)이며, 일시상환 및 마이너스통장으로 취급 가능하다.

대출대상은 현재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1년 이상 법인기업체 재직 중인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의 직장인이며, 부담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한다.

장기요 본부장은 “언택트 뱅킹 확산에 발맞춰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고객중심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모바일을 통해 다른은행의 신용대출을 농협은행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NH로 바꿈대출’을 출시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 및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박종호 산림청장이 장수군 번암면 산사태 피해지역을 찾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청, 산사태 대비 인명피해 예방 강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집중호우에 이어 제5호 태풍 장미가 북함에 따라 산사태 위험지구로부터 국민들의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한 층 더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산림청에서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발령한 산사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10일부터 제5호 태풍 ‘장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사태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긴급재난문자와 자막방송,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산사태 위험 알림과 산사태취약지역, 산지 연접 거주자, 산자락 하단 등 피해 우려지역의 주민들에게 선제적 대피를 강조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산사태 예보 등 기상특보에 관심을 갖고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딸에게 보내는 선물’

## 여성청소년 보건용품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7일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딸에게 보내는 선물’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황의옥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복지사각지대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딸에게 보내는 선물’ 나눔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20여명이 직접 지원물품을 포장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보건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지원물품은 5개월분의 생리대, 파우치, 진통제, 비타민 등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여성청소년 500명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문 대통령 가입’ 필승코리아 펀드 1년 수익률 56%

##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 위해 지난해에 출시

NH-아문디자산운용은 10일 출시 1년을 맞은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가 56.1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운용사인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필승코리아 펀드 설정액은 1230억원(순자산금액 1920억원), 설정후 수익률은 56.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국산화를 통해 동반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펀드다.

지난해 7월 무역분쟁이 심화되던 시기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NH-아문디자산운용에서 같은해 8월 내놓은 상품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사회인사들의 가입이 이어지며 큰 주목을 받았다.

회사 측은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22.11%인 점을 고려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유지했다”며 “주식 시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중장기 성장 테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소부장 기업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필승코리아 펀드는 총 68개 종목에 투자 중이다. 절반 이상인 36개 종목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투자 비중으로는 41%에 달한다.

상위 10개 투자종목은 삼성전자(22%), 에스앤에스텍(4.56%), 네이버(4.49%), LG화학(4.08%), SK하이닉스(3.85%), 카카오(3.34%), 상아프론테크(3.24%), 동진쎄미켐(2.62%), 삼성SDI(2.52%), 덕산네오룩스(2.34%) 등이다.

업종별로는 IT하드웨어(32%), 반도체(28%), 소프트웨어(8%), 소재(8%), 디스플레이(8%) 등에 투자 중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밸류체인 비중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수소차, 풍력, 태양광 등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는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 日 특산물 레스토랑에 ‘K-FOOD 메뉴’가

## aT, 아사쿠사에서 루루브키친과 연계 팝업 레스토랑 운영

## 파프리카 · 김치 등 활용 메뉴 선보여, 말린 감 서비스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도의 대표 관광지인 아사쿠사에서 레스토랑 루루브키친(るるぶキッチン)과 연계해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루루브키친은 일본의 주요 특산물을 사용한 메뉴를 개발해 판매·보급하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이번에는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식재료로 하여 요리전문가를 통해 일본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춘 메뉴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미(美)와 건강의 K-FOOD’를 주제로 대표적인 대일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김치, 고려인삼과 최근 일본에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된 깻잎 등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아울러 방문 고객들에게 한국산 참외, 말린 감을 서비스로 제공해 한국산 식재료의 다양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aT와 루루브키친은 요리 판매와 함께, 매장 내 김치·파프리카 홍보 포스터와 유자차·김치의 효능과 레시피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노출시켜 한국 신선농산물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K-FOOD 팝업레스토랑 전단지를 보고 방문한 20대 일본 고객은 “한국음식을 자주 접했지만, 애호박, 파프리카 등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가 있는지는 잘 몰랐다”며 “특히 애호박을 곁들인 케이크의 식감이 정말 부드러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 시공사 선정… 13일 본공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건축·전기·통신·소방 4개 분야의 시공사를 지난달 24일 선정하고 오는 13일 본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건축은 명두종합건설(주)(낙찰률 81.067%), 전기는 광전력(87.672%), 통신은 세진(87.666%), 소방은 (유)진양전력(87.583%)이 공사를 맡는다.

이번 박물관 건축공사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올해 3~4월 조달청이 기술검토 및 원가검토를 거쳐 5월 19일 입찰공고하고 6월 19일 개찰해 종합심사 후 최종 낙찰자를 통보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부안 새만금방조제 초입지(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29-7)에 위치한다.

주요시설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다목적 강당, 어린이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유호상 기자

# 전북농기원, “여름철 드론방제 안전수칙 준수를”

농업현장에서 여름 방제철 농업용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드론 방제 작업시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농업인의 농업용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살포작업 비용과 방제시간이 줄어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용드론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북농업기술원은 농업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업용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드론방제 작업전 전선·나무·전봇대 등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시설·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살포약제는 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며 대상작물, 희석배수, 살포량, 사용시기, 사용횟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체의 모터와 변속기, GPS안테나, 조종기, 배터리 등 사전점검은 비행중 발생할수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조자를 대동하고 주변에 장해물이 있을 경우 장애물과 평형하게 작업하며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경사지에서는 등고선을 따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작업하되 풍향을 고려하며 전파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행고도는 작물에서 2~3m정도이며 비행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살포의 균일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드론 본체와 살포장치 등을 세척하고 배터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급요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익산=장양원 기자